



**공동체 소식**



## 연중 제31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대한 축제로 모든 성인의 공덕을  
기리게 하셨으니, 성인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바라던 하느님의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소서.



**11월 기도지향**

- 류기범 요셉, 신혜경 마리아 가정
-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외로움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  
곁에서 늘 그들 곁에 계심을 깨닫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위령 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  
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  
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 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11/7(금)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성모성심미사 : 11/8(토) 오전 10시, 묵주의 기도 후 미사

**구역모임**

- 1구역 : 11/9(토) 7시, 정석원 라파엘 가정
- 2구역 : 11/8(금) 7시반, 차호섭 요셉 가정
- 3구역 : 11/9(토) 7시, 고영방 스테파노 가정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 11/15(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어 성당

**Gerard Alba 사제서품식**

- 일시 : 11/15(토) 10:30am
- 장소 : Cathedral of St. Peter / 409 N. 15th St.

**기타**

- 11/2(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 해제됩니다.
- 교무금은 점심식사 전, 재무 위원들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  
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36	216	168/502	227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김준영 요셉	정예찬 미카엘 이원준 요한
차주	고영방 스테파노 정준구 파비아노	고평원 프란치스코 문예나 요안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차주	최은미 아네스	신혜경 마리아 김희영 카타리나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차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0/26	76명	311불	950불
정연숙, 박동희, 양경직, 유길수, 류기범, 주영길(총 6세대)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위령의 날’로서 교회는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하며 그들이 하루 빨리 정화되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가 예외 없이 맞이할 죽음을 생각하며 더욱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도  
록 결심해야겠습니다.

**그림 묵상**

**영원한 희망의 시작**

오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은 불안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옮겨감이다. 죽음 속  
에서 빛이 기다리고 있고 하느님이 나를 자비로이 당신 팔로 안아주실 것이  
다. 죽음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죽음  
의 문턱을 넘어설 것이며 우리에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  
이게 될 것이다.’ (「죽음 후에는 무엇이 오는가?」 바오로딸)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욕기19,1.23-27ㄴ <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

**화 답 송 :**

주 님 제 영 혼 을 당 신 평 화 로 지 켜 주 소 서

- 주님 잘난 체하는 마음 제게 없삽고 눈만 높은 이 몸도 아니오이다.  
한다 한 일들을 좇지도 아니하고 제게 겨운 일들은 하지도 않나이다. ◎
- 차라리 이 마음은 고스란히 가라앉아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어린이인듯  
제 영혼은 젖떨어진 아기와 같나이다. 이스라엘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거라. ◎

**제 2 독서 :** 로마5,5-11  
<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복 음 :** 마태 5,1-12ㄴ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 “연옥의 거룩한 영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질문: 연옥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신심은 무엇 일까요?

대답: 미사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영혼을 위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영혼을 구제하거나 해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미사를 통해서입니다. 교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1032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초기부터 죽은 이들을 존중하고 기념하였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미사 성제를 드렸다. 그것은 그들이 정화되어 지복 직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사 다음으로 연옥 영혼을 가장 강력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모님 기도인 묵주기도와 십자가의 길이며 이것으로 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께서는 공인된 발현에서 이 세상의 평화, 네 마음 평화,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봉헌하라고 하십니다. 연옥 영혼을 도우려면 우리 자신이 은총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영혼이 연옥에서 빨리 나와 천국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 왜 우리는 계속 죽은 사람을 위해 미사를 바치고 기도하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하나요? 거룩한 영혼을 위해 왜 기도를 하나요?

대답: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의 죄가 속죄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자신의 자비는 영혼을 연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정의는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일기 1226, 20). 그분은 우리 손에 영혼들을 도울 방법을 쥐어주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영혼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왜 자신을 위한 미사를 포함해서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 미사를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주 지적하십니까?

대답: 제가 로마에 있는 레지나 아브스폴로룸 대학의 유명한 전례 교수인 에드워드 맥나마라 신부님께 여쭙보았습니다. 살아 있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사를 바쳐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무한한 선물입니다. 절대 멈추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성화의 은혜를 키워갈 능력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기꺼이 받으면 그 결과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사를 바치고 기도한다면 그들은 은총에 응답합니다. 둘째, 실제 대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전구 기도를 바치면 회개에 필요한 은총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그것은 또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룩함과도 적합합니다.

질문: 우리는 어떻게 연옥을 피할 수 있나요?

대답: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피하십시오. 묵주기도를 하십시오. 매달 고해성사 하십시오. 고난을 받아들이세요. 용서하세요. 이 세상에서 평생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연옥에 가게 되면 거기서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질문: 다른 충고의 말씀이 있나요? 특히 할로윈, 모든 성인 대축일, 위령의 날이 다가오는 데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적합한 말씀이 있으신가요?

대답: 죽어가는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자비의 기도를 바치세요. 기도를 드리면 영혼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요셉의 죽어가는 자를 위한 경건한 기도를 드리세요. 11월 1일-8일에 묘지를 방문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연옥 영혼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억하세요. 위령의 날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공동묘지에 데려 가세요. 무덤에 성수를 뿌리는 것을 가르치세요. 죽은 사람을 존경하도록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연옥에서 배우고 연옥을 피하고 연옥을 비워야 합니다.



- 수잔 타슨, EWTN 인터뷰 -



# 제 1 편 하느님 공경

## 제12-2장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5-27).

### 【주석】

**사랑하시는 제자** :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복음서에서 한 번도 직접 거명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뜻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회 전통에서는 대개의 경우 이 제자를 공관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과 동일시한다(성경주석, 신약, 408).

### 【설명】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누가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누가 함께 있었는가? 요한복음은 그 가장 고통스런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있었음을 밝힌다.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고 기르신 성모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아드님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맡기시고, 제자에게는 어머니를 맡기신다.

### 【교회의 가르침】

▶ 일생 동안, 그리고 극도의 시련, 곧 그 아드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를 가장 순수한 신앙을 실현하신 분으로 공경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9항).

### 【어록】

▶ 나는 성모님을 그분의 공로에 합당하게 사랑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과 천사들을 모두 합쳐도, 성모님을 그분의 공로에 합당할 만큼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안아 주십시오. 그분께 위안을 드리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늘의 성모님께 늘 가까이 있으십시오. 그분은 아침노을 건너편 기슭에 있는 영원히 빛나는 왕국으로 가는 바다가기 때문입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카푸친회의 시복 시성 조사 청원자인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 신부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수도원 장상이 비오 신부에게 묵주기도를 매일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다. 비오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장상께는 진실을 말해야겠지요. 3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에게 묵주기도는 세계를 위한 주님의 구원 계획을 묵상하는 기회였다. 그는 늘 예수님과 마리아의 삶에서,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 정신 안에서 맴돌았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비오 신부가 서거하기 전날 저녁에 몇몇 동료들이 그에게 물었다. “한 말씀 해주시지요, 신부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성모님을 사랑하세요. 성모님을 사랑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늘 묵주의 기도를 바치세요!”(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임종 순간까지 비오 신부님의 입에 맴돈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1968년 9월 23일 새벽).